

**보잉 독점 공급 계약  
완화시킬 수도...**

보잉사가 맥도널더글라스와의 합병에 대한 유럽의 반발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요 3개 항공사들과 맺은 항공기 독점 공급 계약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6월 25일자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사인 동 업체가 유럽 연합이 지난 12월에 발표된 140억 달러 상당의 합병을 승인하도록 하기 위해, 아메리칸항공, 콘티넨탈항공, 델타항공과 맺은 항공기 공급 계약에 있어서 독점 조항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보잉의 관계자들은 이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고 있으나, 보잉사는 이번 합병이 7월 1일 연방 무역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EU의 집행 위원회의 승인도 이를 곧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보잉사와 항공기 독점 공급 협정을 맺었던 한 항공사의 관계자는 동 항공사는 이번 계약에서 독점권 조항을 철회하는데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 유럽의 불안은 최근 보잉사가 서명한 3개의 독점 공급 계약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것은 금액으로는 160억 달러 이상인 고정 주문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0년에 걸친 이 독점

계약은 옵션을 포함한다면 이보다 더 큰 것이다. 아메리칸항공만 따로 보더라도 모든 옵션을 행사한다면 약 200억 달러 규모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BA, 10억 달러 상당의  
보잉기 추가 주문**

보잉사는 지난 6월 20일 영국의 항공사인 브리티시 에어웨이즈(BA)가 10억 달러에 상당하는 5대의 B-777과 3대의 B-767을 추가로 주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는 이번 주문에 따라 앞으로 2년간 동 항공사의 B-777은 총 23대로, B-767은 28대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A는 이번 추가 주문으로 런던 공항의 지부를 매각함에 따라 전국에 걸친 인원 감축이 뒤따를 것이라는 종업원들의 불안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BA의 전무 이사 로버트 에일링은 '이러한 주문은 격심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앞서 나아갈 것이며 성장할 것이라는 증거이다'라고 말하고, 58,000중 5,000명의 종업원을 감축함으로써 2000년까지 연간 10억 파운드(16억 6천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히 고객 서비스와 비행 승무원과 같은 주요 부문에서는

같은 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스웨스트항공 50대의  
에어버스기 주문**

지난 6월 19일 유럽의 항공기 컨소시엄인 에어버스는 미국의 항공사 노스웨스트가 A319 50대의 확정 주문 및 최대 100대의 옵션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50대의 항공기의 가격은 A319 한 대의 가격을 평균 4천만 달러로 계산할 때 약 2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MOU는 확정 주문이라기 보다는 구매에 대한 약속에 가까운 것이다.

에어버스사는 동 125인승, 쌍발제트기는 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이 이해각서가 가까운 미래에 최초 계약으로 성사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노스웨스트의 회장 존 다스버그의 말을 인용했다.

노스웨스트는 현재 50대의 A320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추가로 20대의 A320이 98-99년 사이에 인도될 예정이다.

**ICAO 안전 수칙 준수 강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최초로 안전 기준의 설정에서 적용

까지를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적 행동 계획을 작성했다. ICAO 회장 Assad Kotaite는 '이번 안전 기준 준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은 엄청난 약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의 기준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ICAO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ICAO는 안전 및 보안을 감독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도입해 왔다. 이와 동시에 ICAO의 항공 항법국(Air Navigation Bureau)은 전세계 항공 분야의 항공 항법상의 애로 사항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유럽 각국을 포함한 거대 산업 국가들은 개혁을 강력히 주장해 왔는데, 그 동안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은 국가의 주권 문제를 염려하면서도 ICAO에 대해서는 조심성 있는 태도를 취해 왔다. 이에 대해 Kotaite는 ICAO가 이번의 새로운 역할에 있어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러·중 합작 화물 항공사 설립

6월 19일 러시아의 민간 화물 항공사 Volga-Dnepr는 러시아와 중국의 고위 항공 관리들이 합작

화물 항공사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 곧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동사의 대변인 콘스탄틴 로고프는 '우리의 중국 파트너사는 중국 내의 화물 수송 및 중국-러시아간의 화물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작 화물 항공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러시아 교통부 장관은 이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바 있으나, 러시아 관리들은 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로고프는 Volga-Dnepr의 파트너 중국의 State Aviation Corp는 '이 합작 회사 설립에 열의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직 명칭이 결정되지 않은 이 업체는 러시아가 제작한 일류신 Il-76과 투폴레프 Tu-204C 화물기를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항공기들은 임대할 예정인데 그 수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 플랫엔휘트니, 싱가포르 엔진 오버홀 사업에 참여

세계 항공사들에 대한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플랫엔휘트니사와 싱가포르항공의 자회사인 SIA Engineering Company

(SIAEC)는 싱가포르에서 민간 항공기 엔진 오버홀(overhaul) 합작 사업 시작하는데 동의했다. 7월 1일에 서명된 이해각서에 의하면, 이 새로운 사업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시설 중의 하나인 SIAEC의 엔진 오버홀 작업장을 바탕으로 구축될 것이다. 플랫엔휘트니는 동 사업의 51%를 소유하게 될 것이며, SIAEC는 인력과 관리 임원을 제공하게 된다.

### 걸프스트림, FAA의 걸프스트림 V 생산 인증 획득

7월 1일, 걸프스트림(Gulfstream Aerospace Corp.)사의 걸프스트림 V 비즈니스 제트기는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로부터 제트기 제작 허가 인증을 받았다. 이 생산 인증은 걸프스트림의 제작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FAA의 검토에 기초한 것이며, 동사가 신형 걸프스트림 V의 생산하면서 감항성 인증을 얻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다. 걸프스트림 V는 지난 4월에 'full FAA type'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최초로 완성된 걸프스트림 V기는 7월 1일 첫 고객에게 인도되었다.